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76호 【루게 제24589호】 주제103(2014)년 6월 25일(수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평양육아원, 애육원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
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평양육아
원, 애육원건설장을 현지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한광상동지, 국방위
원회 설계국장인 육군중
장 마원춘동지가 동행하
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건설에 동원된 군부대지휘
관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 2월 평양시의 육아
원과 애육원을 돌아보시
면서 부모없는 아이들도
우리 혁명의 계승자, 미
래의 역군들이라고 하시
며 풍치수려한 대동강기
슝에 육아원과 애육원을
새로 일떠세워주시겠다는
은정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양육아
원, 애육원을 세상에 들도
없는 아이
들의 요람으로 꾸려주시기
위해 몸소
설계도 지도해주시였고 자
재보장대
책을 세워주시였으며 나
라의 건설교
육자부대로 자랑떨치는
조선인민군



제267군부대를 건설에 투입해주시
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아안고 건설장에 진출한 군인건설자
들은 단 며칠사이에 굴착공사를 끝낸
데 이어 팔조공사를 힘있게 벌림으로
써 불과 1개월 남짓한 기간에 평양육

아원, 애육원건물의 자태가 드러나게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설장
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에
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
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양육아

원, 애육원이 일떠서는 곳은 정말로 명
당자리라고 하시면서 육아원, 애육원을
우리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철저
히 구현된 로동당시대의 또 하나의 본
보기건축물로 일떠세워야 한다고 말씀
하시였다.

침실을 비롯한 모든 요소요소를 최

상의 수준에서 시공하며
야외 및 실내물놀이장과
오락실도 특색있게 꾸려주
고 보육원, 교양원들의 생
활실은 물론 후생시설들도
잘 건설해야 한다고 지시
하시였다.

육아원과 애육원의 원아
들은 락아소, 유치원생들인
것만큼 책상과 결상, 침대
를 아이들의 연령심리적특
성에 맞게 제작하여야 한다
고 하시면서 모든 가구와
비품, 집기류들을 당에서
마련해주겠다고 말씀하시
였다.

평양육아원, 애육원의 주
변정리를 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수 있는 공원을 중심
에 맞게 재미나게 꾸리고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많
이 심어야 한다고 지시하시
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가 건설하는 모든것은 세계적인것
으로 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자
면 건설자들이 한강의 벽돌, 한삼의 물
람에도 당의 의도와 애국의 마음을 담
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평양육아원, 애육원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 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건설에서 공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며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고히 보장하는 조선인민군

제 267군부대에 건설을 맡겼으므로 건축물의 질에 대하여서는 마음을 놓는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당에서 평양 육아원, 애육원을 표준이 되게 건설하

려는것은 이곳을 본보기로 각 도의 육아원과 애육원들도 잘 꾸리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부모없는 아이들과 돌봐줄 사람이 없는 로인들은 물론 장애자들도 따듯이 보살펴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것이 사회적기공으로, 온 나라 대가정의 가풍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제 267군부대 군인건설자들이 평양육아원, 애육원건설을 올해 당창건기념일까지 완공함으로써 당중앙의 의도를 실천으로 받들어 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사설

선군의 기치높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의 길을 열자

6월 25일은 미제침략자들이 조선민족에게 아물수 없는 상처를 남긴 원한의 날, 미제와 그 주구들에 대한 치솟는 증오를 폭발시키는 분노의 날이다.

지금으로부터 64년전인 1950년 6월 25일은 조선반도가 《아시아에 있어서 미국의 성공여부가 달려있는 싸움터》, 《공산주의와의 승패를 겨루는 시험장》이라고 떠들면서 매국역적 리승만도당을 사육하여 북침전쟁의 불을 질렀다. 미제는 우리 공화국을 타도하기 위해 저들의 군사경제적잠재력을 광그리 동원하여 인류가 일찍이 알지 못하는 온갖 야수적방법들을 다 썼으며 심지어 원자탄투하까지 꾸미었다.

장군님지 불과 2년밖에 안되는 우리 공화국과 세계《최강》을 자랑하는 미제와 15개 추종국가군대, 남조선피괴군 등 제국주의련합세력과 이 전대미문의 전쟁은 단위전적 규모와 치열성에 있어서 사상 최대의 전쟁이었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3년간의 전쟁은 물리적대결이 전에 사상과 리념의 대결, 정신력의 대결이었으며 자주적인으로 사느냐, 아니면 또다시 외세의 발굽 밑에 짓밟히느냐 하는 판각리싸움이었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평창이 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명도임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무비의 용감성과 대적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을 알리고 서둘러 전쟁의 불을 질렀던 미제는 력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였고 전쟁을 수 없는 내리막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력사승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군사사상과 주체전략의 빛나는 승리였으며 수령님의 부채를 받들고 귀중한 어머니조국을 지키기 위해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애국심과 조국수호정신, 백철불굴의 투쟁정신의 승리였다.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끄시어 우리 조국과 인민을 생사관망의 위기에서 구원해주시고 이 땅위에 통일된

영의 새시대를 펼쳐주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조국청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날것이다.

《전체 조선민족은 내외호전세력들의 대결과 전쟁행동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고 단호히 저지시켜야 한다.》 전쟁의 포화가 멎은 때로부터 60여 년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조선반도에서는 미제와 피괴호전광들의 끊임없는 북침전쟁도발책동으로 어느 하루도 전쟁의 위험이 가시진 때가 없었다. 미제의 침략적이며 야수적인 본성은 어찌나 오늘이나 달라진것이 없으며 날이 갈수록 더욱 포악해지고있다. 미국은 지난 조선전쟁에서 당한 수치스러운 참패에서 웅당할 교훈을 찾은 대신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야망을 버리지 않고 년대와 세기를 이어오며 새 전쟁도발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여 조선반도정세를 전쟁경계로 몰아넣고있다. 뿐만아니라 우리 민족 내부문제에 간섭하고 제방을 뚫어서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의 길을 막아놓으려고 하고있다. 상전을 등에 업은 남조선피괴들은 《키 리올브》와 《독수리》, 《올지 프리덤 가디언》을 비롯한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미친듯이 벌려놓으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도발을 일삼고 미국이 주도하는 미, 일, 남조선 3각군사동맹강화책동과 미사일방위체계 구축술에 적극 가담하는 한편 《통일대박》이냐, 《드레젠선언》이냐 뭐니 하면서 전 조선반도를 썩어빠진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부식시키기 위한 체제동일책동에 피논이 되어 날뛰고있다.

외세가 강요한 전쟁으로 하여 커다란 피해를 겪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평화와 통일은 최대의 념원이다. 미국과 피괴호전광들의 북침전쟁도발책동을 수수방관한다면 북과 남의 우리 민족이 다시금 전쟁의 참화를 피할수 없다. 현실은 해내외의 온 겨레를 미제와 피괴패당의 무분별한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

투쟁으로 부르고있다. 반전평화투쟁은 우리 민족의 사활적과제이다.

미제와 남조선피괴호전광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철저히 짓부셔버려야 한다.

인류가 일찍이 체험하지 못한 세계적인 열핵전쟁으로 번져질 제 2의 6.25가 가져올 재난은 결코 지난 세기 50년대의 전쟁참화와 비교할수 없다. 오늘 우리 민족이 나아가길 길은 오직 하나 미국과 그 주구들의 반공화국대결과 전쟁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전민족적인 애국정신을 총발기하는것이다.

해내외의 온 겨레는 반전평화수호의 기치를 높이 들고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 미제와 남조선피괴호전광들의 무력증강과 북침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저지되려야 한다. 이 성스러운 투쟁에서는 북과 남이 따로 있을수 없고 계급과 계층, 정권과 신앙, 소속의 차이가 있을수 없다. 우리 민족에게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는 원흉이며 조선반도평화과피의 진범인인인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기 위한 거족적투쟁을 누구나 한결같이 펼쳐나서야 한다.

내외호전세력이 떠들고대고있는 《북핵 및 미사일위협》소동의 위협성을 폭폭히 인식하고 미국의 무분별한 핵위협과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는 투쟁의 불길을 새차례 지펴올려야 한다. 미국은 지난 1950년대의 조선전쟁에서 방대한 병력과 최신형무장장비들을 총동원하고서도 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도장을 찍은 치욕의 력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

선군정치는 제국주의침략세력과의 침예한 대결에서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의 무기이다.

온 사회에 근사적기공을 철저히 확립하고 우리 공화국을 그 어떤 침략세력도 범접할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어야 한다. 군민대단결을 철동같이 강행한다면 북과 남의 우리 민족이 다시금 피괴의 참화를 피할수 있는 비결로 되겠다.

해내외의 온 겨레는 선군순호에 민족의 밝은 앞날이 있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이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위대한 선군정치를 애국의 한마음으로 받들어나가야 한다.

미국에 매여달려 민족의 리익을 팔아 먹고 북침야망을 실현하려는 반역의 무리들을 그대로 두면 온 민족이 재앙을 면할수 없다. 해내외의 온 겨레는 외세를 등에 업고 새 전쟁도발소동에 기승을 부리는 피괴패당의 반민족적, 반통일책동들을 준철히 폭로탄핵하고 철저히 짓부셔버려야 한다.

6.15 통일시대를 되살리는것은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이룩하는 길이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바라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지지옹호하고 그것을 철저히 리행하기 위한 애국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 북남선언들을 외면하며 그 리행을 거부하는 반통일세력의 책동을 추호도 용납치 말아야 한다. 남조선당국이 정중으로 긴장완화와 평화, 나라의 통일을 바란다면 그 무슨 《통일대박론》이나, 《드레젠선언》이냐 하는 오가잡탕대안을 들고다닐것이 아니라 북남선언들을 준중하고 리행하려는 필성부러 독촉하리 말아야 한다.

우리는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대결을 조장하는 내외호전세력의 책동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것이며 그에 단호한 반격을 가할것이다.

철세의 위인 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있고 백두산혁명강군과 핵무기보다도 더 위력한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이 있기에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철세의 위인을 높이 모시고 이 땅위에 무궁영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민족의 앞길을 막을 자 이 세상에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선군의 기치아래 굳게 뭉쳐 내외반통일세력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앞당기기 위해 힘차게 싸워나가야 할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 주신대로 천년책임, 만년보증의 구호 밑에 많은 대상물을 우리 당의 과학중시사상과 주체적인 건축미학사상이 반영된 백점, 간점짜리를 완성함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동시키기 위한 사상선, 선전선동의 뒷바람을 더욱 새차례 일으키며 군민협동작전으로 건설을 불이 번쳐 나게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지휘관들과 일꾼들은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유능한 작전가, 완강한 실천가가 되어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며 모든 단위들에서 사회주의경쟁열풍을 일으켜 건설사대중을 적극 불리언결대 대하여 언급하였다.

성, 중앙기관들을 비롯한 편관단위들에서 필요한 설비와 마장자재들을 건설에 지장없이 보충하며 모든 건설자들은 당의 요구, 인민의 요구를 명심하고 많은 대상물들을 기발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세우는데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치말씀을 높이 받들고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을 새차례 지펴올려 위성과 과학자거리건설에서 조선의 결심은 물론 실천이라는 진리를 온 세상에 다시한번 힘있게 파시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조선중앙통신】

우리 나라를 방문한 외국의 벗들은 혁명투쟁건설에 쌓으신 백두산결사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중국 항일혁명투쟁연고자 추모회의의 말 주위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총대 조선혁명을 개척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한평생을 조선의 독립과 사회주의건설, 통일위업을 위해 바치시였다.

조선인민을 가장 존엄하고 긍지높은 인민으로 되게 하여주시는 김일성주석을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백철백승의 강철의 명장으로 우러르고있다.

민민의 어머니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것이다.

월남정찰총대대표단 단장 또 반 도영은 자기의 격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위대한 선군명장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투쟁건설의 최정성기를 열어놓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제국주의자들의 압살책동을 짓부시고 혁명의 진취를,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시였다.

군력강화에 쌓으신 천출위인의 업적은 영원불멸할것이다. 강한 군대를 가지고있기에 조선의 사회주의는 끄떡없다.

오늘 선군혁명위업은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다.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당대표단 단장인 남골로 음봄바는 체류기간 조선의 현실을 목격하고 커다란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와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멸불위의 활동으로 조선을 강위력한 국가로 전변시키시였으며 나미비아를 비롯한 아프

리카인민들의 투쟁에도 변함없는 지지와 연대성을 보내주시였다.

선대수령들의 위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각하의 현명한 명도와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국방공업의 튼튼한 토대는 조선의 국방력이 대단히 높은 수준에 올라설수 있는 비결로 되었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 오가미 쟁이씨는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제국주의의 강권과 전횡을 끝장지지 않고서는 모든 나라들에서 평화를 실현할수 없다.

온갖 지배와 억측을 반대하고 자주적으로 살려는 인류의 지향과 념원은 더욱 강렬해지고있으며 정의의 길로 나아가는 력사의 흐름은 그 누구도 막을수 없다.

현실은 선군의 길로 나아가매만이 자주적이며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백두의 천출위인들을 모시였기에 조선은 무진막강한 자위적국방력을 가질수 있었으며 이것은 진보적인민들에게 본보기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각하께서 계시어 김일성주석과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념은 빛나게 실현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모잠비끄해방전선당 중앙위원회에 축전을 보내었다

모잠비끄해방전선당 중앙위원회 앞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모잠비끄해방전선당장전 52쪽에 즈음하여 귀 당 중앙위원회와 전체 당원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친선적인 인사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오랜 역사적전통을 가지고있는 우리 두 당사이의 훌륭한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좋게 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당을 강화하고 나라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귀 당의 활동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위성과과학자 거리를 제기일에 훌륭히 일떠세우자

군민 열기모임 진행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위성과과학자거리를 제기일에 훌륭히 일떠세우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우리는 24일 현지에서 진행된 모임을 이끄는 인민투쟁부위원장인 조선인민군 특근장 현영철동지의 보고에 이어 조선인민군 장령 김정환, 대외건설지도국 부국장 신재일, 조선인민내무군인 박광원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과학자들을 위한 현대적인 위성과과학자거리건설을 받기하시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주시였으며 뜻깊은 6월 19일 몸소 현지에 나오시어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어 건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다그쳐 끝낼데 대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과학자 살림집건설에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질보장에 선자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과학자들에게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살림집을 안겨주시고 쓰기에 말씀하시였다고 말하였다.

올해 당창건기념일까지 건설을 완공하는것은 당에서 과학자들과 한 약속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단위들에서 대상별, 단계

1950년 6월 25일의 공화국인민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의 시련속에서 자기가 세운 새 제도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바쳐 싸웠습니다.»

1950년 6월 25일은 훌륭한 역사의 하루이다. 하지만 우리 인민은 6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날을 잊지

평화와 번영의 꿈을 안고

전쟁에 휩쓸린 당시 인민들의 자애와 희망, 구체적인 말과 행동을 론하기에 앞서 반드시 언급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 인민이 어떤 상황에서 미제와 리승만파괴들이 강요한 전쟁에 부닥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60여년전 역사의 갈피를 헤치는 과정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주목하게 되었다.

1950년 6월 24일, 백두산지구에서는 위엄-대평사이 립산철도개통식이 거행되었다. 협찬한 산맥을 계절리수십km에 달하는 철도부설공사를 완공한 백두산립건설사무소 노동자들은 년간 10만톤의 통나무를 건설터전으로 집중수송할 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은 기쁨과 자랑을 안고 개통식에 참가하였다.

1950년 6월에 들어와 각지의 탄광과 광산,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2개년인민경제계획 초과완수를 위한 애국적생산경쟁운동이 더욱 힘차게 벌어졌다. 6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체산계획을 110%로 넘겨 수행한 신장탄광을 비롯하여 각지의 많은 탄광, 광산들이 20일간 생산계획을 초과수행하였으며 청수화력공장을 비롯한 여러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6월 중순에 들어와 생산속도를 6월 초순에 비하여 2배 이상으로 높이고있었다.

조국해방전쟁 발발당시를 돌이켜보며

있고있으며 그 준엄하고 비참한 시각에 자신을 새워보고있다. 수천만의 공화국인민들중 누구도 바라지 않았던 전쟁, 가지가지의 아름다운 생활이 약탈되어있는 평화로운 일요일의 새벽에 갑작스레 들이닥친 이 가증스러운 불행과 재난앞에 그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섰는가.

우리의 소중한 오늘과 래일을 짓밟은 침략자들에게 죽음을!

이 시기 국영지방산업공장들의 생산장성은 놀라운 경지에 도달하여 합성납도의 지방산업만 하더라도 한 분기의 총생산량이 1947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 27배에 달하는 획기적장성을 이룩하였다.

농촌들에서도 농민들의 애국적열의밑에 영농전투가 속속 다그쳐지고 불철주야에 걸쳐 수매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더우기 주목할만 한 사실은 녀성들의 사회진출이 적극화된 것이다. 해방된 조국에서 까마눈을 뜨고 인간으로서의 참다운 존엄과 권리를 찾은 우리 녀성들은 높은 창작성과 애국적열성을 발휘하여 인민경제발전을 위한 보람찬 일터에 앞을 닦아주어 뛰어 들었다. 그리하여 이즈음에 와서 녀성기술자, 녀성인공의 대렬이 급격히 늘어 나고있었다.

교육문화분야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1950년 6월 24일, 평양의학대학에서는 의학부 및 약학부 졸업식이 있었다. 정부군일꾼들이 참가한 속에 의학부와 약학부의 졸업생들에게 영예의 졸업증서가 수여되었다.

1950년 6월, 김일성종합대학에서는 연극인 연극생들의 학위논문출제자격검토를 위한 전공과목과 관계과목들의 시험이 진행되고있었는데 이 시험은 7월말까지 계속 실시될 예정이었고 국립 음악학교에서는 1950년 9월에 입학시킬 본과 및 연구부 신입생모집사업이 한창이었다.

이 진행되고있었는데 이 시험은 7월말까지 계속 실시될 예정이었고 국립 음악학교에서는 1950년 9월에 입학시킬 본과 및 연구부 신입생모집사업이 한창이었다.

전쟁전야에 벌어진 이와 같은 사실들만 놓고보아도 절세의 애국자 김일성장군님을 따라 조국면역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던 당시 인민들의 드높은 기백과 약동적인 숨결을 느낄수 있다.

우리의 소중한 오늘과 래일을 짓밟은 침략자들에게 죽음을!

1950년 6월 25일 조선중앙방송국은 이날 이른 새벽 남조선괴뢰군이 38°선전역에 걸쳐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불의의 무력침공을 개시한데 대한 내부성보도를 전하였다.

그 소식은 한순간 많은 사람들을 울리지게 하였다. 그러릴 유유하고 기세찬 우리 인민의 생활이 전쟁이라는 거대한 장벽에 부딪쳐 잠시 흐름을 멈춘것이었다. 쇠붙던 용해공들, 화물을 싣고 두들기 케도우로 내다던 기판사들, 모래기를 쫓는 기쁨에 넘쳐있던 농장원들을 비롯한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은 방중에서 울려나오는 소리에 두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다.

«이제, 개놈들! 제때에서 마 음껏 잘살아보라 했더니... 제정군의 한 농민이 건넌 호미를 버쩍 쳐들고 남쪽을 향해 터친 이 절규는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심정을 대변한 것이었다.»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분노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다. 평양파산공장 노동자 황은길은 남조선괴뢰군이 불의에 침공

명의 극적전환을 맞이한 우리 인민들은 크나큰 삶의 회회과 향만, 보람에 넘쳐 행복찬 민주의 나라, 누구나 다같이 일하고 배우며 잘사는 근로대중의 참다운 낙원을 신심드높이 건설해가고있었다.

같은 날 평양공업대학에서도 500여명의 청년학생들이 인민군대입대를 단념하였으나 28일에는 평양사범대학, 평양음악학교, 평양미술학교, 평양농업전문학교, 평양철도전문학교, 농업전문학교 등 각지의 수많은 대학, 전문학교, 초고중학교 등에서 청년학생들이 전선으로 나갈것을 단념하였다.

같은 날 평양공업대학에서도 500여명의 청년학생들이 인민군대입대를 단념하였으나 28일에는 평양사범대학, 평양음악학교, 평양미술학교, 평양농업전문학교, 평양철도전문학교, 농업전문학교 등 각지의 수많은 대학, 전문학교, 초고중학교 등에서 청년학생들이 전선으로 나갈것을 단념하였다.

우리의 소중한 오늘과 래일을 짓밟은 침략자들에게 죽음을!

한데 대한 공화국 내부성보도를 들고 참을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놈들의 무법질도 전선전역에 제물들의 최후의 멸망을 조해하는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영배우 문예봉은 침략자들에게 대한 문과적 증오가 불길처럼 쏘아오르며 하면서 리승만도당이 38°선이북지역에 대한 모험적전행행위를 중지하지 않는다면 적들을 제압하기 위하여 결정적대포를 취하게 될것이라는 내부성보도를 무한한 격동속에 들었다고 하였다.

당시 인민들속에서는 전쟁이 일어난 소식이 로양소나 휴가길에서 들은 사람들이 있었고 멀지않고 있게 될 대학입학시험을 앞두고 학업에 열중하던 청년들도 있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여도 서로의 희망과 포부는 달랐지만 조국의 운명이 판가름되는 전쟁이라는 비참한 국면앞에서 전체 인민의 마음은 하나로 되었다. 전선단원! 일터에서도 마을에서도 교정

에서도 이 목소리가 높이 울려 퍼졌다. 6월 27일, 김일성종합대학에서는 집회가 진행되고 2800여명의 남조선청년학생들이 전선으로 보내줄것을 열렬히 단념하였다.

같은 날 평양공업대학에서도 500여명의 청년학생들이 인민군대입대를 단념하였으나 28일에는 평양사범대학, 평양음악학교, 평양미술학교, 평양농업전문학교, 평양철도전문학교, 농업전문학교 등 각지의 수많은 대학, 전문학교, 초고중학교 등에서 청년학생들이 전선으로 나갈것을 단념하였다.

같은 날 평양공업대학에서도 500여명의 청년학생들이 인민군대입대를 단념하였으나 28일에는 평양사범대학, 평양음악학교, 평양미술학교, 평양농업전문학교, 평양철도전문학교, 농업전문학교 등 각지의 수많은 대학, 전문학교, 초고중학교 등에서 청년학생들이 전선으로 나갈것을 단념하였다.

우리의 소중한 오늘과 래일을 짓밟은 침략자들에게 죽음을!

한데 대한 공화국 내부성보도를 들고 참을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놈들의 무법질도 전선전역에 제물들의 최후의 멸망을 조해하는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영배우 문예봉은 침략자들에게 대한 문과적 증오가 불길처럼 쏘아오르며 하면서 리승만도당이 38°선이북지역에 대한 모험적전행행위를 중지하지 않는다면 적들을 제압하기 위하여 결정적대포를 취하게 될것이라는 내부성보도를 무한한 격동속에 들었다고 하였다.

당시 인민들속에서는 전쟁이 일어난 소식이 로양소나 휴가길에서 들은 사람들이 있었고 멀지않고 있게 될 대학입학시험을 앞두고 학업에 열중하던 청년들도 있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여도 서로의 희망과 포부는 달랐지만 조국의 운명이 판가름되는 전쟁이라는 비참한 국면앞에서 전체 인민의 마음은 하나로 되었다. 전선단원! 일터에서도 마을에서도 교정

회 등을 열고 전선으로 나갈것을 단념하였다. 도적고양이들처럼 이른 새벽에 전쟁을 도발한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아침은 해에서 먹고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게 될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지만 전쟁첫날부터 뒤뚱뒤뚱이 내뿜는 비참한 개신세가 되고말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미국놈들이 조선사람을 잘못 보았다고 명철하게 말씀하신것처럼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우리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봉착 산악같이 밀려선 우리 인민의 신명과 의지를 나무도 모르곤했다. 우리 인민은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고도 주먹으로 눈물을 뚫기만 하였던 1900년대 초엽의 약한 인민이 아니었고 일제에게 무참히 짓밟혔던 조선인의 중심, 단결의 중심이 어떻게 방황하던 불행한 인민도 아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새 나라에서 참된 주인으로 다시 태어나 자기 힘을 가슴부듯 이 자각한 자주적이며 존엄로운 인민이었다.

우리의 소중한 오늘과 래일을 짓밟은 침략자들에게 죽음을!

민주전선의 나날 한마음한뜻으로 새 나라 건설사가 되었던 그들이 조국안에 준엄한 시련이 닥쳐오자 한결같이 총을 잡은 군인이 될것을 열망하였다. 전선에 나갈것을 단념하였지만 또 소망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과 소년들과 부녀자들, 로인들은 또 그들대로 할 일을 찾았다.

전쟁개시와 함께 공화국의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시간외로동이 활발해졌다. 인민군대에 들어가는 원호품을 마련하여 보내기 위해 애썼고, 군기금원남운동이 전인민적애국운동으로 확대발전되어

로동자, 농민, 사무원, 청년학생, 애국적인 상공인, 소년 등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들이 앞을 닦아주어 참가하였다.

공화국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민청호》, 《대학생호》, 《녀성호》, 《소년호》 등의 이름을 단 비행기, 탱크, 함선들을 인민군대에 헌납할것을 결의하고 그를 위하여 각종 자체철야, 로동생산물공제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애국적인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였다.

신민주주의에서는 1300여명의 녀성들이 열기대회를 가지고 열출안으로 《녀성호》비행기 1대이상을 전선에 보낼것을 결의한 후 제봉기, 금비너, 시계 등 7여종의 물품과 5만여원의 현금을 그자리에 바치었다. 강원도안의 녀성들은 《녀성호》비행기, 탱크기금으로 986만원의 헌납하였다. 전쟁개시이후 한달 남짓한 기간에 헌납된 군기금총액은 1억 7449만 7000여원, 8월말까지는 무려 4억원 이상에 달한다.

우리의 소중한 오늘과 래일을 짓밟은 침략자들에게 죽음을!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불타는 원수적열의 의지와 조국결사수호정신이 그대로 담긴 군기금은 침략자들의 가슴속에 복수의 불씨를 안기는 총포탄으로,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강화하고 전쟁의 승리를 촉진하는 무적의 힘으로 되었다.

침략자들이 저지른 전쟁개시와 함께 온 나라의 전선과 후방이 따로 없는 전민행정의 싸움터로 변하였던 전제 인민은 그 가련한 전장에서 피와 살도, 생명의 아낌없이 바쳐 싸우는 불굴의 투사들로 되었다.

바로 그 후순들이 이 땅을 지켜서 주권을 침탈자들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본사기자 허명숙

만은 틀림이 없다. 하지만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참다운 인민의 공화국을 따르고 받들어가는 우리 인민의 굽힘없는 신념과 의지를 순간도 꺾지 못하였으며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서 혁명적열의와 애국심이 스러지게 하지는 못하였다.

전쟁발발이래는 준엄한 시련앞에서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봉착으며 애국심을 최대한으로 폭발시켰다.

1950년 6월 25일을 전후로 벌어진 많은 사실들은 력사의 거울과도 같이 위대한 수령의 손길앞에 가장 존엄높은 인민, 힘있는 인민으로 자랑난 우리 인민의 장한 모습을 뚜렷이 비추주고있으며 우리 인민의 3년간의 전쟁이 자기의 초노와 제도를 수호하려는 필승의 전민행정으로 될 수밖에 없는 력사의 비결을 가장 생동찬 화폭으로 보여주었다.

우리의 소중한 오늘과 래일을 짓밟은 침략자들에게 죽음을!

침략자들이 강요한 6.25! 우리 인민의 열의적 기세로 화담해낸 6.25! 그것은 결코 64년전의 과거가 아니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또다시 《6.25》를 강요하려 든다면 우리 인민은 1950년 6월 25일의 그 열렬한 애국심과 오만 세월 다지던 애국적정신을 그대로 되살려내어는 중요로 총포탄처럼 침략자들을 저지수상에서 씨도 없이 모조리 소멸하고야말것이다.

평범한 날과 달이 흐르고 세대와 대대는 바뀌어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1950년 6월 25일의 공화국인민들의 불같은 애국의 모습이 간직되어 불굴의 투사들로 되었다.

바로 그 후순들이 이 땅을 지켜서 주권을 침탈자들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본사기자 허명숙

6.25미제반대투쟁의 날에 즈음한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의 복수결의모임 진행

6.25미제반대투쟁의 날에 즈음한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의 복수결의모임이 24일 강서구역 수산리계급교양관 교양당에서 진행되었다.

모임에는 농근맹, 관계부문 일꾼들, 강서구역의 농업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리명철 농근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강서구역농근맹위원장 장동남, 수산농장 관리위원장 리동환, 만경대구역 원로남새전문농장 농장원 조명규가 토론

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6.25미제반대투쟁의 날을 맞는 온 나라 전체 농업근로자들의 가슴은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수미제에 대한 증오와 불타는 복수심으로 끓어오르고있다고 말하였다.

1950년 6월 청소년 우리 공화국을 요망기에 접어삼키려고 침략전쟁의 불을 지른 미제가 이 땅의 모든것을 참혹하게 파괴하고 이르는 곳마다에서 천인공노해 살륙탄행을 감행한데

하여 언급하였다. 전락적인 일시적후퇴시기 미제가 신전당에서 군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만 5000여명의 애국자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하였으며 강서구역에서도 1만 1600여명의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살해하는 귀족같은 만행을 저지르는데 대하여 규탄하였다.

에국자, 열성농민, 인민군대 후방가족이라고 하여 인간으로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살인수단과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

들을 무참하게 학살한 살인극장을 찍은 때로부터 반세기가 훨씬 넘었지만 침략자들의 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평화로운 이 땅을 피로 물들이고 도시와 마을을 재더미로 만든 미제의 반인륜적만행은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세기가 바뀌어도 절대로 잊을수 없으며 우리는 반드시 피의 대가를 받아내고야말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미제가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병진전선을 받들고 인민군대를 백방으로 강화하고 국방공업을 필요한 모든것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며 원호품을 더욱 높여 발휘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한손에는 총을, 다른 손에는 낫을 익세게 틀어잡고 경애하는 원수놈에게 명명만 내리신다면 미제와 박근혜피뢰탄을 단숨에 폭처쳐버리고 쌓이오 쌓이오 피의 대가를 기어이 풀고야말것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사회주의농촌체제발표 50돐을 맞이한 뜻깊은 올해에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집행함으로써 사회주의조국수호전에 합당히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로씨야에 가는 최고인민회의대표단 출발

로씨야의 모스크바에서 진행되는 제3차 국제회의연단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안동총부위원장

을 단장으로 하는 최고인민회의 대표단이 24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비행장에서 판매부문 일꾼과 주조 로씨야리방 특명전권대사가 전송하였다.

라오스대사관 성원들과의 친선모임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사이의 외교관계설정 40돐을 즈음하여 주조 라오스대사관 성원들과의 친선모임이 24일 대동강구역교단회관에서 있었다.

반딧 라오스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초대되었다.

학교 교원, 학생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조선라오스친선협회 부위원장인 서호원 대외문화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친선협회성원들, 조선라오스친선 대동강구역 청류초급중

학교 교원, 학생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그들은 조선과 라오스 두 나라사이의 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학생소년들의 예술소품공연도 관람하면서 친선의 정을 두터이 하였다.

에짚트르명전권대사 7월23일혁명 62돐에 즈음하여 연회 마련

에짚트르에서의 7월23일혁명 62돐에 즈음하여 이만 무스타파 아브드 아흐마드 주조 에짚트르아랍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24일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호원 대외문화협력위원회 부위원장, 판매부문 일꾼들이 초대되었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독자의 절제 한가정, 한식솔입니다

제가 특유영예군인인 남편과 함께 랑랑구역에 이사집을 풀어놓는지도 어느덧 3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자주 찾아와 친혈육의 정으로 따듯이 돌봐주고 있습니다.

그들중에는 우리가 사는 집이 좁아보인다고 하며 자기들이 살던 살림집을 서슴없이 내놓은 평양안과평명 의사 리문동부와 그의 아내 정명희동무도 있습니다. 누구나 이 사실을 알고는 정말 험치 않은 일이라고 하면서 이틀부부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있습니다.

랑랑구역 승리교급중학교 3학년 3반에서 공부하는 립진용학생 역시 우리 가정과 깊은 인연을 맺고있습니다.

진용학생은 영예군인인 저의

독자의 절제 한가정, 한식솔입니다

남편의 친형, 친누이가 되어 정성을 기울이는 부모와 함께 3년 가까이 저의 집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잠시간이 있을 때마다 진용학생은 저의 집에 찾아와 아들의 학습방지도 해주고 남편에게 소शल책도 읽어주면서 온 집안에 웃음꽃을 피워주곤 합니다.

또한 남편에게서 군사복무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 주며 혁명적군정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슴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때없이 저의 집문을 먼저 두드리며 뜨거운 정성을 기울이는 고마운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고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열매야 맺을 수 없는 열육의 정으로 이어진 한가정, 한식솔입니다.

랑랑구역 관문 2동 23인민반 리정화

7월기상조건의 전망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생산은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서는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물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야 합니다.》

우리 나라는 6월 하순~7월 상순에 주로 북부 지방을 지나가는 저기압과 오호조크해고기압의 영향을 받을것으로 예견된다.

평균기온은 7월 상순에 전반적 지방에서 18.1~23.2℃로 1~3.2℃로 3~0.5℃, 지난해보다 0.6~4.9℃ 낮을것으로 보고있다.

강수량은 7월 상순에 전반적 지방에서 35~82mm로서 평년보다 4~18mm, 지난해에 비하여 8~28mm 적을것으로 예견된다.

이와 관련하여 논벼농사에서는 조질비료와 이삭비료를 제때에 질적으로 주며 논물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질비료를 이삭배기 40~45일전에 주어야 한다. 이삭배기 35~82mm로서 평년보다 4~18mm, 지난해에 비하여 8~28mm 적을것으로 예견된다.

이와 관련하여 논벼농사에서는 조질비료와 이삭비료를 제때에 질적으로 주며 논물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질비료를 이삭배기 40~45일전에 주어야 한다. 이삭배기 35~82mm로서 평년보다 4~18mm, 지난해에 비하여 8~28mm 적을것으로 예견된다.

이와 관련하여 논벼농사에서는 조질비료와 이삭비료를 제때에 질적으로 주며 논물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간종 및 울종들을 심는 포전들에 이삭비료를 제때에 주어야 한다.

중간종, 울종들은 이삭배기 30~35일전에 주어야 한다.

중간종, 울종들은 심는 포전들에 이삭비료를 주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일석이 매우 연한 경우 정보당 50kg이하로 적게 주어야 한다.

논물관리를 잘하여 한다. 논물관리를 잘하여 한다. 논물관리를 잘하여 한다.

논물관리를 잘하여 한다. 논물관리를 잘하여 한다. 논물관리를 잘하여 한다.

논물관리를 잘하여 한다. 논물관리를 잘하여 한다. 논물관리를 잘하여 한다.

논물관리를 잘하여 한다. 논물관리를 잘하여 한다. 논물관리를 잘하여 한다.

논물관리를 잘하여 한다. 논물관리를 잘하여 한다. 논물관리를 잘하여 한다.

논물관리를 잘하여 한다. 논물관리를 잘하여 한다. 논물관리를 잘하여 한다.

논물관리를 잘하여 한다. 논물관리를 잘하여 한다. 논물관리를 잘하여 한다.

중간종 및 울종들을 심는 포전들에 이삭비료를 제때에 주어야 한다.

중간종, 울종들은 이삭배기 30~35일전에 주어야 한다.

중간종, 울종들은 심는 포전들에 이삭비료를 주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일석이 매우 연한 경우 정보당 50kg이하로 적게 주어야 한다.

논물관리를 잘하여 한다. 논물관리를 잘하여 한다. 논물관리를 잘하여 한다.

논물관리를 잘하여 한다. 논물관리를 잘하여 한다. 논물관리를 잘하여 한다.

논물관리를 잘하여 한다. 논물관리를 잘하여 한다. 논물관리를 잘하여 한다.

논물관리를 잘하여 한다. 논물관리를 잘하여 한다. 논물관리를 잘하여 한다.

논물관리를 잘하여 한다. 논물관리를 잘하여 한다. 논물관리를 잘하여 한다.

논물관리를 잘하여 한다. 논물관리를 잘하여 한다. 논물관리를 잘하여 한다.

논물관리를 잘하여 한다. 논물관리를 잘하여 한다. 논물관리를 잘하여 한다.

